

# 귀족불교에서 민중불교로 가는 전환기 반영



## 불화 속의 명 장면 (18)

설법인 보살형 노사나불의 출현(하)

### 조선후기 화엄탱, 팔상탱 속의 설법하는 노사나불

자비로운 행동(菩薩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莊嚴). 쉽게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갓가지 꽃(華)으로 장엄(莊嚴)한다'라는 <화엄경(華嚴經)>의 의미입니다. 어렵게 말하자면, '불성(佛性) 또는 해인삼매(海印三昧)를 증득한 법신(法身)의 과보를 장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 자신의 이득만을 위한 강박하고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남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자애로운 마음을 내어 주변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장엄 행위라면, '보살행'이란 그리 심오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을 듯합니다.



그림2: 노사나불, 선암사 화엄탱 부분, 1780년

태양빛이 우주를 가득 비추어 밝히고 만물을 성장케하듯, 부처님의 신묘한 작용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여 중생의 갓가지 요구에 응답해 자유 자재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화엄삼매'라고 합니다. 즉 '태양' 그 자체가 법신(法身, 해인삼매의 경지)이라면 '빛'은 보신(報身, 화엄삼매의 작용)입니다. 누군가에게 넉넉하고도 자비로운 마음을 받을 때는 마치 파사로운 햇살 속에 있는 듯 하지요. 내가 받은 햇살로 나는 또 다른 이를 비추고, 다른 이는 이 햇살을 받아 또 다른 이를 비추어 세상을 따뜻하게 하겠지요.

고, 입법계품은 선재동자가 '보살행과 보살도를 닦는 방법을 구하는 여정'을 묘사한 것입니다. 즉 '보살행'의 단계와 수행방법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노사나보살(보살상공명공덕품)' '비로자나장보살(입법계품)'이라는 구체적인 명호가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명칭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화엄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사상이 '불성'이라는 진리, 그 자체에 대한 설명과 '이에 도달하기 위한, 또는 이를 장엄하기 위한 보살행'이라는 것을 숙지한다면, 그 조형적 표현으로서 '설법인 보살형 노사나불'에 대한 이해는 그리 어렵지 않은 듯합니다.

<화엄경>은 경전 속에 설해진 설법의 장소와 횡수를 중심으로, 전체 80권이 총 7처 9회로 나누어 설명됩니다. 바로 이 7처 9회의 설법의 주인공(說主)은 보현과 문수를 필두로 한 여러 보살님들입니다. <화엄경> > 7처9회를 도해한 그림이 바로 조선후기 유행한 화엄탱이고, 이 화엄탱에는 설법하는 설법인의 보살(그림2 선암사 화엄탱 부분, 1780년)과 청중 보살로 가득합니다.

'설법인의 보살형' 형식을 취한 노사나불 존상은, 지난회(연재17)에서 언급했듯이 조선후기 팔상탱의 주된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화엄탱' 및 '팔상탱'에도 필히 등장하는 존상입니다. 삼신탱(법신 비로자나·보신 노사나·응신 석가모니)의 삼신을 그린 불화의 '노사나불'은 물론이요, 팔상탱(석가 일대기를 여덟 장면으로



그림1: 설법하는 노사나불, 송대 범망경보살계본 사경화, 교토대학부속도서관 소장 다니무라 문고

### 화엄탱 팔상탱 삼신탱 등에 설법인 보살형으로 등장 설법 시작 순간 대중의 소원 들어주는 신적 존재로 고려 후기 '범망경' 사경화 등에서 보이기 시작

나누어 그린 불화의 경우,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에서 어김없이 이 설법인의 보살형 노사나불이 등장합니다(그림3 해인사 팔상탱의 녹원전법상 부분). 바로 이 장면은 석가모니가 득도 한 후,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설법(初轉法輪)하는 역사적 순간'을 묘사한 것입니다. 지난회에서 이미 다루었듯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자비심을 내어 설법을 시작한 이 순간, 석가모니는 더 이상 역사적 존재로서의 한 인물이 아니라 대중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신적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불교는 개인적 수행과 연마

의 '자기철학'에서 민중을 구하는 하나의 '종교'로 승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 성불을 위한 소승적 목표와 민중구제 및 교화의 대승적 목표를 한꺼번에 지닌 존상을 '보신(報身)'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신은 수용신(受用身)으로 자수용신(自受用身)과 타수용신(他受用身) 양자적 의미를 모두 갖춘 존재라고 정의됩니다. 자수용신이란 '수행의 결과로서 얻은 불교와 자내중의 법문을 스스로 수용하여 즐기는 부처', 타수용신이란 '그 깨달음의 결과와 법문을 다른 사람에게 수용시켜 교화하

여 지도하는 부처'입니다. 이 타수용신의 대표적인 부처님으로 가장 인기있었던 아미타여래와 약사여래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적 존재로서의 보신 노사나불의 의미를 절묘하게 표현해 낸 것이 연재 1에서 소개한 일본 심문사 소장 조선 전기 '오불존도(五佛尊圖)'입니다. '오불존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보신 노사나불은, 고려의 귀족불교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조선후기 민중불교로 가는 대대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강소연(미술사학자·홍익대 겸임교수)

경전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범망경'을 설하는 주인공은 노사나불이니, <범망경> 사경화 등에 노사나불이 묘사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원각경>의 설법 주체는 석가세존인데 어쩌서 <원각경> 관련 불화에는 주존이 노사나불로 표현되는 것일까요? 설법하기 시작한 석가세존은 바로 '수용신' 즉 '보신'으로서 그 덕회를 보인 것이라는 사실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전기 세종 및 세조 시기 를 기점으로 회통과 융합의 대명사로서 자리잡게 된 '설법인 보살형 노사나불'은, 고려의 귀족불교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조선후기 민중불교로 가는 대대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림3: 석가모니부처님 첫 설법 장면, 해인사 팔상탱 녹원전법상 부분, 조선후기

#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중등

팔각복속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복속등)

공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